

조합원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노조본색! 상생발전!

정 이철환

부 이정엽



대구대학교 제19대 노동조합 위원장 · 부위원장

선거 소견문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대구대학교 제19대 노동조합 선거에 출마한 위원장 후보 **이철환**, 부위원장 후보 **이정엽**, 조합원 동지 여러분께 무거운 마음으로 인사 올립니다. 위원장 후보 이철환은 지난 17대, 18대에 이어 노동조합의 미래적 개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다시 준비하였습니다. 이정엽 부위원장 후보와 함께 지난 노동조합 활동을 성찰하여 계승하면서도 새롭게 노동조합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냉정하고 준엄한 평가를 주신다면, 이철환 · 이정엽 후보는 겸허하게 받들고 심기일전하겠습니다.

동지 여러분께서 지난 노동조합에 대해 많은 기대를 보내주셨고, 18대 노동조합 또한 여러 약속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성찰하면 내외적 불완전한 환경과 초유의 위기 상황이 있었을지라도, 역량이 미치지 못하여 동지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채워 드리지 못했다는 자책과 반성의 뜻을 먼저 고백합니다.

한편으로 지난 시기 동지 여러분의 지혜로운 단결력으로 몇 가지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첫째, 1년여의 활동으로 법인에 총장선출규정을 제정함과 동시에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설치 및 직원 위원을 다수 참여케 하였고, 전국 국공 · 사립 대학 중 최대의 직원참여 지분을 확보하여 총장후보 선출에 참여하여 대학민주주의 모델로 평가받았습니다. 둘째, 방학 중 단축근무 및 학기 중 유연근무제의 단체협약 명문화, 장기근속자(10, 30년) 포상특별휴가 시행을 쟁취하여 다소나마 동지 여러분의 복리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임금 및 각종 복지정책 삭감(제) 저지를 통해 퇴행 없는 생계권 사수를 이뤘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동지 여러분의 지혜롭고 단결된 의지에 의한 것입니다.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활동 경과를 가감 없이 작성해 놓았으니, 살펴주시고 냉엄한 평가와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새로 세워질 19대 노동조합 앞에는 노동조합 본연의 책무를 다하면서 공동체의 위기 극복이라는 과제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철환 · 이정엽 후보는 **노동조합의 본질적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동지 여러분과 직접적 소통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에 몇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조합원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노조본색! 상생발전!

정 이철환

부 이정엽



임금인상과 직원충원을 쟁취하는 노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사태와 입학생 모집 대실패 등으로 표현되는 대학의 최대 위기 속에서 직원사회는 의연한 대처와 담대하고 안정적인 행정으로 위기를 차단하고 오히려 발전이라는 희망의 불씨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통에 더하여 직원 인력은 급속하게 축소되었지만, 군말 없이 노동강도를 견디고 있습니다.

이에 제19대 노동조합은 부당노동에 가까운 고통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조속한 인력의 충원을 통한 노동 고통의 전면적 완화 및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직원충원 쟁취를 위해 적극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실질임금 감소를 감내하면서 오늘날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동지 여러분의 정당한 생계권을 사수하기 위해 임금인상을 위해 투쟁하겠습니다. 노동청, 노동위원회의 테이블에는 노동자의 자리도 준비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공동체의 존속과 발전, 구성원의 미래적 상생을 주도하겠습니다.

동지 여러분께서 주지하듯 입학생 모집 대실패의 위기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염원 속에 새로운 총장체제가 세워졌습니다. 고통을 견디던 구성원들은 희망에 찬 기대감으로 새로운 리더십에 성원을 보냈습니다만, 변화의 내용과 모습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다는 일부 평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궁금해하고 걱정하면서 동지 여러분께서는 우려의 뜻을 노동조합에 전하고 있습니다.

19대 노동조합은 대학본부의 경영과 정책이 부실하고 무능할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기 극복과 생존을 위한 경영과 의사결정이 진행되지 않다는 것은 생존터를 패망하게 하는 지름길임을 구성원들은 근년 경험했습니다. 노동조합은 동지 여러분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존속하는 공동체를 위해 상생의 지혜는 발휘하되, 경영의 무능과 상실에는 과거사를 되풀이하더라도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대학의 생존을 담보할 각종 정책과 사업이 합리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실현가능하게 추진되지 않는다면 좌시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조합원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노조본색! 상생발전!

정 이철환

부 이정엽



노동조합의 미래를 담보하는 실천을 약속하겠습니다.

지난 77차 임시총회에서 보고 드렸듯 대학공동체의 위축과 아울러 제기된 노동조합의 미래적 생존을 위한 개혁은 절실합니다. 개혁의 실천과 완수는 현재의 동지들과 미래의 동지들의 방과제를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파손되고 있는 방과제를 다시금 근본적으로 보수하여 든든하게 건설하는 일입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외면하고 회피할 사항이 아니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이 건설될 제19대 노동조합이 동지들과 다각도의 소통, 절차적 정의에 부합하여 동지들의 의사결정으로 노조 개혁을 수행하겠습니다. 2020년대를 견디고, 2030년대의 미래세대에 안전한 버팀목으로 우리의 노동조합이 계승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대학교 조합원 동지 여러분!

동지 여러분의 결심으로 이철환·이정엽 후보가 노동조합을 맡게 된다면, **우리 직원사회의 단결된 지혜와 힘으로 노동조합 본연의 임무를 쟁취하는 노동조합, 조합원의 뜻을 받들어 실천하는 노동조합, 조합원의 권익을 사수하고 공동체와 상생하는 노동조합을 만들겠습니다. 임금인상, 직원총원, 경영감시, 노조개혁의 제19대 노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6. 7.

제19대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임원선거

위원장 후보 이철환 · 부위원장 후보 이정엽 올림